

## 세상의 빛

### -아세르 인트레이터

1. 이번 주는 하누카와 크리스마스 사이에 낀 주입니다. 저희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영적,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이 둘 사이에 “끼어”있습니다. 저희 예루살렘 공동체 아하발 예슈아에서 저는 세상의 빛이신 예슈아, 그리고 그 분과 성전 촛대와의 연관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2. 우리는 메시아의 탄생 일자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비아의 제사장 반차(**눅 1:5, 대상 24:19**)부터 엘리사벳과 미리암의 임신(**눅 1:24**)까지의 월수를 계산해 수꼴(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예슈아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볼 수 있는 유익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장막절의 많은 국제적, 국내적 요인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에 메시아의 탄생을 기념하기는 어렵습니다.]
3. 하누카는 키슬레브월 25 일에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는 12 월 25 일입니다. 히브리어 창세기의 25 번째 단어는 “빛”입니다. 만약 예슈아께서 12 월 25 일에 태어나셨다면 1 월 1 일에 할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눅 2:21**). 모든 등잔불이 켜지는 하누카의 8 번째 날은 히브리 달력 중 가장 어두운 달의 가장 어두운 밤인 테벨월 월삭에 옵니다.
4. 창세기 1:3 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해와 별들은 네 번째 날에 가서야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의 빛은 물리적 창조를 넘어선 영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5. 이 영의 빛은 영적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세상에 임하리라고 예언되었습니다(**사 9:1**). 이 빛은 “태어나는 한 아기, 주신 한 아들”의 모습으로 임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사 9:6**). 그 아기의 빛은 열방 위에 드리워진 큰 영적 어둠 가운데 마지막 때 영광스럽게 빛날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퍼질 것입니다(**사 60:1-3**).
6. 그 아기/빛은 다윗의 집에 태어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 이 분이 바로 예슈아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세상의 빛입니다(**요 8:12; 9:5**).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 빛이었으며,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말씀과 그 빛, 하나님은 모두 하나입니다. 예슈아께서

그 말씀이시며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그 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받습니다(요 1:1-18).

7. 토라에는 메노라 촛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불을 밝히는지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출 25:31-40). 스가랴 4:2-3 에서는, 그 등대에 더 깊은 예언적 상징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촛대와 올리브 가지는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기본적 로고입니다.) 그 제사적 상징은 토라에서 주어졌고 그 영적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 계시되었습니다.
8. **요한계시록 1:12-20** 를 보면, 영화된 메시아께서는 일곱 금촛대 사이에 서계십니다. 그 촛대는 메시아와 함께 영광스러워진 한 무리의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에클레시아(교회)이며, 성도들의 공동체이자 더 큰 이스라엘 연방입니다. 그 토라의 상징과 선지자들의 환상, 신약 성경의 계시는 모두 똑 같은 성경이라는 한 그림의 일부입니다.
9. 하누카는 마카비 가문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정화된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이교도 안티오쿠스 황제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기적적인 등잔 기름 이야기는 후기 랍비 문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국과 빛이라는 주제가 신약 성경에서 대단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하누카 절기는 딱 한 번 간단히 언급되어 있습니다(요 10:22).
10. 메시아의 탄생이 유대 역사의 정점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사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예수아께서는 세상의 빛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초대 제자들의 머리에 내렸을 때(행 2:3), 그들은 성전의 촛대가 된다는 예언을 처음으로 성취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자취를 좇아, 세상이 우리를 통해 메시아의 빛을 볼 수 있게 합시다.

## 징계인가 용서인가

-란 캔터

죄를 지은 사역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징계해야 하나요, 아니면 용서해야 하나요?

타락하여 회복 절차를 따르다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그 회복 절차에서 도망한 한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이런 사역자를 판단하거나 그가 리더 역할을 지속하는 것을 못마땅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몸 된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스리고 징계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고전 6:1-11**).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라도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합니다. 용서에 있어서 다른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직분에는 자격과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딤펴 3 장**). 그러므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그를 권위의 자리에 회복시키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와 리더십에 맞는 자격을 갖추는 것을 혼동합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녀가 못된 짓을 한 후에 용서는 하지만 여전히 아이의 유익을 위해 처벌합니까? 우리가 타락한 사역자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그 자신과 그가 이끄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도적 지도자들이 징계를 해야 합니다.

징계의 과정은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과 회복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대나 조종 같은 경우, 문제는 용서뿐만 아니라 향후 학대에 의해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도 관련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타락한 사역자들 만큼이나 회복될 권리가 있습니다. 용서와 징계는 똑 같은 회복 과정의 일부입니다.

## 기도 제목

- 존(John O.), 로즈(Rose D.), 바셍(Vashek K.)의 치유를 위해
- 이스라엘 총선에 옳은 결과가 있도록
- 이집트의 시위와 시리아의 내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알 하얏(Al Hayat) TV 와 이스라엘 하이(Israel Chai) TV 를 통한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 <아키바의 과수원>이라는 책이 많이 읽히도록
- 나사렛의 카톨릭 사제 자브릴 나다프(Jabril Nadaf)를 보호해 주시도록

-야드 하쉬모나의 건축 프로젝트에 돌파가 일어나도록